

'AI기반 탈중앙화거래소' 올해 문여나 지스트 리버밴스, AICA 지원사업 선정

- 이흥노 교수 창업기업 '리버밴스'... 2023년 AI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 받아
- AI스타트업 도약의 발판 마련해... 연내 AI-DEX 서비스 오픈 예정



▲ 리버밴스 이흥노 대표(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)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교원 창업 기업인 리버밴스(대표 이흥노)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(이하 AICA, 단장 김준하)이 지원하는 **'2023년 AI 제품·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'**에 선정되어 6월 27일 협약을 체결했다.

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**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**으로, 이미 제작된 AI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사업화를 지원해서 **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고 계속 성장**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. 선정된 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국내외 플랫폼에 기업을 등록하거나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.

블록체인 메인넷과 인공지능 융복합 기업인 리버밴스는 이번 협약으로 **AI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'AI-DEX*'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해 연내 오픈**할 계획이다. AICA의 프로그램에 따라 과제수행, 사업화, 성과확산에 필요한 교육, 컨설팅, 실증장비 활용, 컴퓨팅 자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**DEX(Decentralized Exchange):** '탈중앙화거래소'를 뜻하며 중앙화거래소(CEX)와 달리, 개인 간 금융(P2P)이 가능한 거래소로 중개인 또는 관리자 없이 개인이 직접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래 방식이다.

리버밴스는 AI-DEX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해서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.

리버밴스 이흥노 대표는 “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한 후 중앙화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를 대체할 DEX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”이라며, “기존 중앙화거래소 사용자들이 DEX를 이용하기에는 비영구적 손실*의 위험 요인이 컸는데 리버밴스는 **이 위험을 대폭 경감한 AI-DEX 출시**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선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* **비영구적 손실(Impermanent Loss):**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(자산을 예치했을 때) 예치된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을 뜻함

한편,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이흥노 대표가 2020년 설립한 리버밴스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성을 인정받아 **2022년 벤처캐피탈(VC) 엔젤 투자를 유치**하는데 성공했다. 이어 같은 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**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(TIPS) 프로그램에 선정**되어 TIPS R&D 및 창업사업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리버밴스는 현재 Pre-A* 투자 유치를 협의 중으로, 55억 원 규모의 외부투자를 받아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DEX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. 리버밴스 본사는 지스트 산학협력연구소에 위치해 있으며 임직원은 총 13명이다.

* **Pre-A:** 시장 검증을 마친 시제품/베타 버전을 정식 오픈 준비하는 단계인 시리즈 A 투자 직전의 투자를 말하며, 꼭 A가 아니더라도 투자 단계 직전에 받는 투자다.